

					G-A-9
제목	국문	대북 보건의료 인도적지원의 정책방향			
	영문	Policy Directions for Humanitarian Health Care Support to North Korea			
저자 및 소속	국문	이윤환 <sup>1</sup> , 박종연 <sup>2</sup> , 이순영 <sup>1</sup> , 장영애 <sup>3</sup> , 이경중 <sup>1</sup> , 김영찬 <sup>3</sup> , 신의철 <sup>4</sup> , 이연경 <sup>1</sup> ,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1</sup>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sup>2</sup>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식품산업단 <sup>3</sup> ,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sup>4</sup>			
	영문	Yunhwan Lee <sup>1</sup> , Jong Yeon Park <sup>2</sup> , Soon Young Lee <sup>1</sup> , Young Ae Chang <sup>3</sup> , Kyung Jong Lee <sup>1</sup> , Young Chan Kim <sup>3</sup> , Euichul Shin <sup>4</sup> , Yeon Kyung Lee <sup>1</sup> <i>School of Medicine, Ajou University<sup>1</sup>;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mp; Management, Yonsei University<sup>2</sup>;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sup>3</sup>; College of Medicine, Catholic University<sup>4</sup></i>			
분야	보건관리 [기타]	발표자	이윤환 [일반회원]	발표형식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p>1. 목적</p> <p>북한은 장기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보건의료시스템이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이에 따라 결핵, 말라리아, 수인성 감염질환 등 각종 전염병의 발생이 증가하는 등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식량난으로 인해 주민의 영양수준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는 상태이다. 북한 주민의 열악한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인도주의적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은 절실한 실정이다.</p> <p>본 연구는 대북 보건의료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북한 보건의료지원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현재 북한의 보건의료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의 기본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정부, 국내 NGO, 기업, 학계 등 다양한 지원주체간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p> <p>2. 방법</p> <p>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지원동향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출처의 문헌고찰을 통해 수집하였다. 북한관련 국내외 학술논문 및 보고서, 인터넷상의 통일부, 국제기구, 민간단체 등 관련기관의 각종 자료 및 지원활동 보고서, 언론보도자료 등을 이용하였다. 또한, 국제기구 관계자, 북한방문 의료인, 주요 민간단체 담당자 등과 면담을 통해 북한 보건의료의 최근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p> <p>3. 결과</p> <p>북한 보건의료체계는 고도로 조직화된 보건의료체계를 갖추고 있으나 경제난으로 인한 보건의료 자원의 절대부족으로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이 극도로 약화되어 있어서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주민의 건강수준은 1995년 중반을 전후로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특히 영양결핍 등에 가장 민감한 영아 및 유아에서의 호흡기 및 설사병으로 인한 사망이 증가하고, 예방접종률의 감소로 인한 전염성질환의 유행이 우려되고 있다.</p> <p>대북지원 동향을 보면 1995년부터 2000년 말까지 총 대북 지원액은 16억 6,073만불로 이중 한국이 4억 7,657만불, 국제사회가 11억 8,416만불을 지원하였다. 2000년도에만 2억 2,042만불을 지원했는데, 국내에서 1억 1,376만불(민간 31%), 국제사회에서 1억 666만불을 지원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제기구, 개별국, 국제 NGO의 지원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북한내 투명성 보장 미흡, 취약계층 지원의 제약, 보건의료 및 영양 지원활동 미흡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p> <p>국내 대북지원 현황을 보면 정부차원에서는 주로 식량, 비료 등 지원에 집중하여왔으며, 민간단체 지원의 활성화를 위해 창구다원화, 남북협력기금 지원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대량지원, 남북협력기금의 제한적인 운용 등이 민간차원의</p>					

지원활성화에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국내 지원은 현재 한민족복지재단, 유진벨재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남북어린이어깨동무, 월드비전, 한국이웃사랑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보건의료협력본부 등 일부 민간단체에서 주로 담당해 오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일반구호적 지원을 중시해왔으며 최근 보건의료 분야 지원이 증가 추세에 있다(2000년도 보건의료 부문의 지원액: 1,380 만불; 전체지원의 12%를 차지). 그러나, 전문성 부족, 재정적 취약성, 투명성 미흡, 상호협력 저조 등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 4. 고찰

보건의료분야의 지원은 사업의 전문성, 다양성, 접근성, 지속성 등 제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정부, 민간단체, 기업, 학계간 역할분담,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 강화, 지원주체간 협력체 구축 등 민간단체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대북지원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 설정, 북한실태분석에 근거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현 지원형태의 개선 및 수준 제고, 국제사회와의 공조 모색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북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보건의료지원이 장차 남북교류와 협력의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한 보건의료지원은 인도주의적 당위성과 함께 향후 통일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